

장애인 야학에 관한 문화 기술적 사례 연구 : 질라라비 야학을 중심으로

김 용 옥*

김해 삼계초등학교

김 병 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요 약》

본 연구는 대구 질라라비 장애인 야학의 역사를 기술하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생과 교사의 문화가 어떠한 맥락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분석하여, 장애인 야학이 가지는 교육 문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상 모든 차별 철폐를 지향하는 질라라비 장애인 야간학교는 2000년 제도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월,수,금 3일간 야간에 수업을 진행한다. 질라라비 야학 학생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수동성을 벗어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학습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여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간화'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교사는 투철한 봉사정신과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한 문화를 형성하며,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장애인을 둘러싼 억압적 현실을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동안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게 된다. 제도권 교육에서 시도 할 수 없는 자유로운 교육과정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는 장애인 야학 학생들의 의식을 깨우쳐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사회운동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주제어 : 장애인, 야학, 교육과정, 학생문화, 교사문화

1. 서론

1. 문제제기

우리 사회에서 야학은 제도교육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경제적 기반이 약한 노동자들과 진보적 대학생이나 지식인이 자발적으로 꾸려가는 작은 지역 공동체이다. 야학에 다니던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이자 약자였으며, 학습을 통해 계층상승 욕

* 교신저자(k960905@hanmail.net)

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변혁의 주체로 서기를 원했다. 진보적 활동가들은 계급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실천을 통해 사회변혁의 작은 축이 될 수 있기를 꿈꾸었다. 야학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이자 피억압자였다는 점에서 같은 처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활동가들과 학생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자신들을 억압해온 '사회'의 실체에 눈을 뜰 수 있다(김은경, 1988).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소외된 피억압자가 아닌 삶의 주체자로 사는 법을 익혀 나가고 있다. 어쩌면 그곳은 학교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삶을 꿈꾸는 소외받는 소수자들의 해방구였을지도 모른다. 야학을 만들어낸 주체가 진보적 활동가들이었다고 볼 때, 야학의 발전과 전망은 활동가들의 실천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야학은 취약한 물질 기반과 시공간적인 열악함 때문에 참여자들의 삶을 변화시켜 사회 변혁운동의 하나로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면, 같은 시대와 역사를 살아온 '장애인 야학'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장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우 낮으므로 스스로 정치적 세력을 넓히기에 이들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다. 그저 한 인간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교육권을 박탈당한 장애인들이 가졌던 꿈은 배움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었다. 하지만 점차 이들도 학습을 통해 자신들을 억압하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장애인 야학'도 소수자이지만 동등한 인간으로서 삶을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많은 장애인들과 진보적인 활동가들이 결합한 곳으로 변모되어 갔다(장애인지역공동체, 2002). 이들은 '야학'이 단순히 기존의 학교역할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았다. '야학'은 지식을 나누는 곳을 넘어 소수자와 약자를 억압하고 따돌리는 세상과 맞서는 법을 배워야 하는 곳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장애인 야학은 그저 학교라기보다는 장애인들을 향한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억압을 의식하는데 목적을 두고, 서로 삶을 나누며 함께 문제를 공유해 나가는 일종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 그 부족함은 그저 소수자들의 삶을 단지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는 가난을, 신체적으로는 고통을, 일상적인 삶에는 큰 슬픔을 가져다준다(김도현, 2007). 제도교육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은 야학의 진보적 활동가들의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희망을 꿈꾸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야학을 통해 배움의 욕구를 일정부분 충족하지만, 그 배움의 한계를 어렵지 않게 깨닫는다. 즉, 이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세상과의 소통은 이미 두려움을 넘어 분노에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삶이 곧 운동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날개, 2002-2004). 따라서 '장애인 야학'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기술을 배우는 학교라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서, 사회운동으로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공동체로 장애인들에게 다가선다. 실제로 장애인 야학의 학교설립 과정과 이들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배우고 익히는 학습에만 머물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의 교육이념과 학교조직운영은 장애인들을 둘러싼 현실적 상황과 전망 속에

서 시작된 것이어서 지역의 장애인운동으로 발전하고 변화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라라비 장애인 야학의 역사와 현황을 짚어보고, 야학의 학생과 교사문화 성격을 구명하며, 이를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는 또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장애인 야학이 가지는 가치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장애인 야학 학생과 교사의 문화가 어떠한 맥락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가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 질라라비 야학의 생성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먼저 개관하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라라비 장애인 야학의 설립배경과 교육과정 운영상의 주요 특징을 밝힌다.

둘째, 야학의 학생문화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 성격을 구명한다.

셋째, 야학의 교사문화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 성격을 구명한다.

3. 연구방법

주된 연구 방법으로는 면담, 참여관찰, 그리고 비디오 녹화의 3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보조 연구방법으로서 사진촬영, 문서 수집을 채택했다. 연구자는 연구를 실시하기 전 6년 동안 질라라비야학 행사에 참가하였고, 본 연구를 위하여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주1회 수업을 참관하였다.

참여관찰은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실과 ‘질라라비’ 야학 두 군데에서 이루어졌다. 참여관찰은 학교일정에 따라 일상적인 활동들을 녹화하여 기록한 것이다. 면담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실시하였는데, 주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실 안에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리의 강약, 문장의 이어짐 등이 매끄럽지 못한 관계로 녹화를 해서 문서화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연결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8mm 비디오 테이프 15개, 30시간 분량의 면담자료를 녹화 테이프로 저장할 수 있었고, A4 용지 67매 분량의 면담일지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유목화하여 내용 전개에 적절히 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주된 연구방법과는 별도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사진, 각종 문서화된 장부, 파일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II. 야학의 설립 배경과 교육과정 운영

1. 야학의 설립과 배경

야학의 설립과 배경에 관한 내용은 보존 자료의 부족으로 설립 당시에 주도적 역할을 한 윤○○(사회복지법인 한○○ 대표), 김○○(장애청소년학교 한○○ 교사), 이○○(초대 야학 교사, 현 ○○병원 근무)의 증언을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설립 동기

질라라비 장애인 야간학교는 2000년 3월 11일 대구시 동구 효목1동 87-7번지에 장애인지역공동체와 함께 개교하였다. 질라라비 장애인 야간학교가 개교하기까지의 과정들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한사랑 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 한사랑)’에 이르게 된다. 당시 대구에 소재한 ‘한사랑 어린이집’은 1992년 개원한 장애아동 교육실이다. 이곳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활동과 함께 ‘영남지역 장애아동 부모회’의 운영으로 부모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간다. 그러던 중 1999년 ‘한사랑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보다 강력한 사회운동의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모습의 단체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 ‘장애인지역공동체’의 설립을 결의하고, 단체의 활동 중심에 장애인 당사자가 자리하기를 소망했다. 이때 ‘장애인지역공동체’의 설립과 함께 또 하나의 관심을 둔 것이 바로 교육이었다. 야학 교사로서 활동한 경험을 가진 활동가들은 장애성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우리도 야학 한번 만들어보자’는데 생각을 모으게 된다. 제도교육이 감싸 안지 못한 장애성인들에게도 여타의 야학처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실에 대해 눈을 뜰 수 있는 경험을 마련해 주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야학’의 설립은 ‘장애인지역공동체’라는 장애운동단체의 활동 중심에 장애인 당사자가 자리하기를 원했던 활동가들의 이념적 필요와 잘 맞아 떨어지게 된다. ‘장애인지역공동체’의 설립을 준비 중이던 활동가들은 당시 ‘한사랑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이○○과 ‘경산 우리야학’ 교사 권○○을 영입하면서 야학 설립의 꿈을 구체화하게 되고, 두 단체의 설립은 자연스럽게 같은 시기에 추진된다.

2) 야학 만들기

‘질라라비’라는 장애인야학의 명칭은 초대 야학 교사이자 1대 교무를 맡았던 권○○ 교사의 제안으로부터 결정이 된 것이다. ‘질라라비’란 ‘닭의 시조’를 지칭하는 순수 우리말로, 민중운동가 백기완 선생의 글 “질라라비 훨훨”에서 따온 것이다. 지금의 닭들은 사육되고 퇴화되어 날지 못하지만, 태고적 닭의 야생성은 억세고 강인하여, 창공을 자유

롭게 날아다녔다고 한다. 지금은 사회의 차별과 편견 때문에 억눌린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차별의 고리를 끊고 넓디넓은 세상으로 날아오를 것이라는 의지와 소망을 담은 이름이 바로 ‘질라라비’인 것이다. 권교사가 제안을 하고 장애인의 처지와 소망이 고루 담긴 ‘질라라비’가 야학의 이름으로 적합하다는 교사, 활동가의 만장일치로, 질라라비 장애인야간학교 공식 명칭이 정해진다.

이후 학교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 학칙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이어졌다. 학교운영에 대한 경험이 전무 하였던 터라 권·이 교사는 우선 경산에 있는 ‘우리야학’과 서울 ‘노들 장애인 야학’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야학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지원 받아 그 틀에 근거하여 ‘질라라비 장애인 야간학교 교칙’을 제정하게 된다. 질라라비 장애인 야간학교 교칙 제2조에서는 ‘제도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최소나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립 목적을 밝히고, ‘세상 모든 차별 철폐를 지향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게 된다. 이것은 장애인지역공동체의 설립이념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1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교사와 학생모집이 시작되었고, 구성원 모집은 개교(2000년 3월 11일)가 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권·이 교사는 당시 직장생활을 하였던 관계로 퇴근 후 ‘한사랑 어린이집’에서 만나 구성원 모집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운 후 발로 뛰는 작업을 하게 된다. 우선 교사와 학생모집 포스터와 안내장을 제작하였다. 권·이 교사는 야학 교사와 학생 모집 포스터를 야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대구 소재 각 대학과 구역별 장애인복지관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하였다. 그리고 대구지역 장애인신문 구독자들에게 일일이 신문과 함께 모집 공고문을 발송하였고, 앞앞이 전화를 걸어 야학을 소개하고 함께 공부할 것을 권유하게 된다.

교사는 대부분 벽보를 통하여 모집되었다. 벽보를 보고 전화 연락이 오면 사전 협의의 통하여 개교 전까지 학생모집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벽보와 입소문을 통하여 야학에 다니고자 희망하는 학생에게서 전화 연락이 오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문제를 삼는 것은 과연 학교를 오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제도교육에 합류할 수 없을 만큼 이동이 제한된 사람들이었으므로 이동에 관한 문제가 가장 관건이 되었다. 야학 교사들은 학교에 다닐 뜻만 있다면 등·하교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고, 연락처를 확보한 후 우선 학생 집으로 가정방문부터 하였다. 배움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하고, 교육의 기초자료를 파악하며, 무엇보다도 가정과 학교와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방문은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 한사람, 한사람 가정방문과 적지 않은 시간의 대화, 믿음이 형성되고, 학생들이 차곡차곡 모이는 만큼 교사들도 신념으로 모이고 뭉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교사 12명, 학생 16명이 확보되었고, 2000년 3월 11일 ‘장애인지역공동체’와 함께 ‘질라라비 장애인 야간학교’는 마침내 개교를 맞게 된다.

2.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원칙

질라라비 장애인 야간학교 교칙에서 밝히고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교육과정을 설치하며, 각 과정의 교육기간은 2년으로 한다. 둘째, 한 학년도는 3월 2일부터 이듬해 3월 1일 까지 하고, 제1학기 와 2학기로 나눈다. 셋째, 매 학기 수업일수는 50일 이상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사회의를 통하여 휴교할 수 있다. 넷째, 매 학기 사이에 방학을 두며, 그 일자와 기간은 교사회의에서 결정한다. 다섯째, 각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교사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여섯째, 수업은 월, 수, 금 주 3일간 이루어지며,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는 휴교한다. 일곱째, 하루 수업은 오후 7시 10분부터 9시 45분까지 이루어지며, 45분 수업에 10분간 휴식한다. 여덟째, 정규 교과만으로는 부족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1회 특별활동 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그 내용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사 회의에서 심의·결정한다. 아홉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한다. 교사 재량으로 수시평가와 학기말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주요 학사 일정을 살펴보면 3월에는 개학식, 개교기념일, 가정방문, 소식지 발생, 4월에는 검정고시, 420 장애차별철폐투쟁, 5월에는 봄 소풍, 6월에는 ‘날개’발행, 7·8월에는 여름방학, 교사연수, 교사엠티, 검정고시, 산간학교, 9월에는 개학식, ‘날개’발행, 10월에는 백일장, 12월에는 방학식, 질라라비인의 밤, 12월에는 교사연수, 교사엠티, 문화체험, 산간학교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사항들은 개괄적인 규정만을 제시한 것이고, 그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한다.

매학기가 시작되기 전 교사회의에서는 교과를 선정하고 시간표를 작성한다. 교과목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지향하고 검정고시를 대비한 주요 과목 위주로 편성하고, 그 운영은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별·단계형 교육과정으로 한다. 또, 학생의 실생활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켜주기 위하여 생활과 경험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의 과목과 특별활동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2) 교육과정 분석

야학의 교육과정은 교사 인력 확보와 학생들의 수준이 다양한 만큼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도 제도교육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야학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가변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Shorris(2006)는 클레멘트코스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원칙으로서 ‘자치’를 채택하고,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원칙이나 교수 방법, 운영의 원칙 등을 철저히 스스로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질라라비의 교육과정

기본원칙 또한 Shorris의 그것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도달해야 할 목표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려는 구성원들의 의지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단기목표인 검정고시를 통과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교육과 비교하여 보면 빈곤하고 단조로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교과목 선정과 내용 구성면에서의 유연성은 자기결정권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잠재적 효과는 제도권의 그것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학의 교육과정은 일반 교과 외에도 문화체험 및 장외투쟁, 정기적인 특별학습 등이 덧붙여 있는 형태이다. 이는 기본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교 밖을 벗어나 다양한 체험과 세상을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을 교육에 담았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 교과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알게 된 것을 실천하면서, 이들은 점차 지금껏 자신을 억압했던 세상을 바로보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 바뀌어나가려 한다는 점에서 야학의 교육과정은 장애인 삶의 반영이기도 하다. 학습이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자신과 세계를 함께 변혁하는 길이 곧 올바른 교육의 길임을 강조한 Freire(1997)의 교육론이 장애인 야학의 교육에 주는 시사는 주목할 만하다. 제도권 교육은 배움과 실천이 병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배움마저도 움직이며 깨닫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닌 수많은 시험지 속에 담긴 죽은 지식이어서 학생의 삶과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모순된 사회를 소수자인 장애인들이 바꾸어 나가는 방법은 배운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실천하며 스스로 깨치는 길밖에 없다. 이른바 이론과 실천의 통합인 프락시스(praxis)를 강조한 Freire(1997)의 뜻도 바로 이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

E. Shorris는 부와 권력을 쥔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인문학이 가난에서 빈민들을 해방시켜줄 열쇠임을 오랜 실천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박진환, 2007). 그가 초대환 학생들은 빈민, 알코올 중독자, 에이즈 환자, 마약전과자 등 우리 시대 가장 밑바닥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인문학은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게 해 주었고, 가난을 극복할 힘을 주었다(E. Shorris, 2006). 야학의 교육과정에 이러한 인문학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필요는 있다. 훌륭하고 자발적인 전문 강사들의 섭외도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Shorris(2006)의 실천이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자발적인 전문 강사들이 이른바 ‘클레멘트 코스’라 일컬어지는 과정의 깊은 뜻에 동참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장애인 야학은 재정적인 열악함과 교사의 부족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꾸려져 나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운동으로서 야학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인적자원의 질 관리에 관한 치열한 고민과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

III. 야학의 학생 문화

야학의 학생은 정시와 수시로 나누어 모집하며, 입학 자격은 초·등·고등학교를 중퇴하였거나 미 수학한 사람으로 하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였더라도 학업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들일도록 하고 있다.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등록 등본이나 복지카드 사본과 입학지원서를 지참하여 제출하면, 교사회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학생으로서 교육받을 수 있다.

장애인 야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교내생활, 교외생활을 모두 살펴보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의 인간사와 어떠한 활동들이 인과 관계를 형성하며 야학 학생의 문화나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야학에 오는 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사연으로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야학의 문을 두드려야 했는지가 구명되어야 할 것 같았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공통적으로 저마다 밖으로 풀어내지 못한 사연들을 가슴 가득 안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적이고도 특징적인 개인사는 학교생활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결고리로 작용한다. 그리고 야학을 통하여 엉켜버린 고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일이 개략적인 차원에서나마 학생들의 문화를 구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야학을 찾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고 매우 가난하기까지 하다. 태어나서부터 혹은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냥 방 안에 있는 것이 유년기의 전부를 차지한다. 학교 갈 나이가 되어도 생업에 바쁜 식구들은 학교에 데려가고 데리고 오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식구들이 모두 빠져나간 빈 집에서 나무와 하늘, 바람을 보면서 성장해 간다. 아침 일찍 차려놓고 나간 밥을 조금씩 떠먹으며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일 나간 식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생활의 전부이다.

인형처럼 집에만 앉아있다고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생활한다고 해도 장애인이 집안에 식구로 있다는 자체가 전체 가정 분위기에 구름을 드리우는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부모님의 생각과 양육태도에 따라서 가정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 짊어져야 할 짐으로 생각하고, 외부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꾀꾀 숨겨두기 바쁘다. 특히 장애인이 만이인 경우에 형제간의 차별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과 골은 생각보다 깊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장애를 가진 형제의 생각은 가정생활에 처음부터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또, 손윗사람으로서 아래 동생에게 할 수 있는 조언조차도 부모에 의해 가볍게 무시되는 일이 다반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으며 자라온 동생들은 손윗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을뿐더러 무언가를 끊임없이 돌봐주어야 하는 걸리적거리는 막내 동생(끄트머

리 형제)쯤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사연들로 가득 찬 사람들은 운명처럼 아주 우연히 야학을 알게 된다. 현재 야학의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손○○은 질라라비 장애인 야학을 소개해준 이웃집 아저씨와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제가 낮에는 골목에 살살 나가거든요. 동네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아저씨가 “공부는 했나?” 하고 물어 보드라고요. 못했다 하니까 그분이 질라라비라는 야학이 있는데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공부한다. 선생님들도 다 좋고, 거기 가면 친구들도 사귄 수 있다. 할 마음만 있으면 거기서 많이 도와줄 거라고 말하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 여기(야학) 봉사자였어요. 그렇게 듣고서도 한 달, 두 달을 버텼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면서도 겁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가 보는 거야 어떻겠노 싶어서 가겠다고 말하니까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식구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할 사람도 없고, 밤에 너무 늦어서 안 된다는 거죠. (중략)

어느 날은 마침 그분이 시간이 된대요. 그날은 비가 왔어요. 하필 전동휠체어 밧데리가 다되어가지고, 아저씨가 전동 휠체어를 밀고... 진짜 그분 아니었으면... (도리도리) 그때가 2004년 5월이었으니까, 내가 서른다섯 살 되던 해였어요.

학생들은 야학에 나오기 전까지의 마음을 ‘집 밖으로 나가면 죽는 줄 알았다’고 말한다.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있다 해도 대문 밖 골목길 정도만 나가본 경험이 전부인 학생들은 먼 거리를 그것도 밤 시간에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부딪치면 쉽게 좌절을 하게 된다. 삼십년, 사십년이 넘는 세월을 집에서 지냈기 때문에 도전하기 보다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편이 훨씬 마음 편하다는 것이다. 또 어떤 커다란 용기가 생겨 야학에 가기를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식구들의 반대를 설득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우여곡절 끝에 학교에 나온 학생들은 첫 느낌을 한마디로 ‘놀랍고 무섭다’라고 이야기한다. 장애인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여럿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그러지고 쭈그러진 외모 때문에 다가서기 매우 무서웠다는 것이다. 망설임과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일단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학교생활이 시작된다. 학생들의 등교와 하교는 길고도 힘겨운 투쟁과도 같다. 손○○의 일과는 아침 일기예보를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저는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어머니께서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데, 내가 줄이고 싶어도 그건 내 맘대로 안돼요. 그래도 일기예보는 꼭 들어요. 나가야 하니까. (중략)

활동보조인하고 점심 먹고 나서 그때부터 학교 갈 준비를 시작해요. 학교는 저녁 6시까지 가면 되지만, 꼬물거리기 때문에 12시부터 준비해야 여유 있게 도착

할 수 있어요. 오후 한시나 두시부터 준비하면 (시간이) 좀 빠듯해요. 저 같은 경우는 몸이 꼬이다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목욕을 해야 해요. 양치질하고, (활동보조인이) 들어 올려서 씻고, 머리감고...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집을 나오지요. 어떨 때는 지하철 두 코스 타고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바로 길로길로(골목길을 통해서) 해가 올 때도 있고, 옛날 전동(휠체어)은 오는 데만한 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지금은 시간이 단축되어가 35분이면 올 수 있어요. 그것도 안 쉬고 계속 와야 돼요.

학교에 도착하면 저녁식사를 하고 7시 10분부터 수업에 들어가게 된다. 수업은 수준별로 진행되는데, 가시적인 목표는 검정고시를 통과하는 것이지만, 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공부보다는 학습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학습을 매개로 한 어울림을 더욱 중요시 한다. 학습 속도가 빠르고 성과 또한 눈에 보인다는 연구자의 말에 박○○은 손사래를 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사실 실력은 안돼요. (검정고시는) 그냥 단순히 찍기를 잘 해서 그런 거고. 시험이라 카는 게 상식이 좀 많이 있더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검정고시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안 시켜 주는데 우리가 잘 해내지요. (야학 교사를 쳐다보며)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검정고시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것은 안 시켜줘요. 나는 또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나이에 판검사 되고 선생 될라꼬 나온 거도 아니고,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멋지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인격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 안 시켜줘도 불만 없어요. 우리는 진짜 삶을 살러 왔어요.

이것은 야학이 학습이라는 기능보다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내 삶을 꾸려나가는 교육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학습에 관한 한 교사나 학생 모두 교과 학습 그 자체보다는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도구로 여기고, 가르치고 배우며 성장하기 위한 발판의 구실을 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쉬는 시간은 교사와 학생이 스스럼없이 일상적인 대화도 하지만, 식구들한테까지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을 나누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다. 특히, 자립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관심이 많아서 서로 정보를 나누거나 용기를 보태어 주기도 한다. 이때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는 후배들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가정생활에 관련된 미묘한 사안의 속내를 털어놓기도 한다. 금전관리에 관한 것, 시설에 보내어질 수도 있겠다는 심리적인 압박 등에 관해서는 여러 날 심층적인 대화를 주고받는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박○○은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날카로운 비판과 따뜻한 조언을 함께 해주는 좋은 선배이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고, 후배는 그이의 조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교과 학습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을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은 바로 특별활동이다. 이 시간 동안은 선생님과 급우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주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문화체험활동이나 소풍에 대한 의논을 하거나 야학식구들만의 조출한 행사(생일파티, 송별회 등), 그리고 장애인관련 대외 투쟁 참여에 관한 의논을 하게 된다. 문화체험이나 소풍 계획이 있을 때에는 처음부터 교사와 학생이 함께 회의를 만들어 나간다. 이때, 교사나 학생은 공히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발언을 할 수 있고, 그 발언은 행사에 소중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참여’와 ‘대화’를 실제로 배우고 실천하는 장이 되므로 무엇보다도 자발성과 적극성이 요구된다.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결정된 사항을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학생의 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주체성의 부족과 함께 지적되고 있는 것이 서투른 감정 조절이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식구들의 보호를 받으며 의지해 살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시점에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지, 또 어떠한 시점에 자기의 의견을 내세워야 하는지 그 수위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다. 손○○은 학생들이 대화와 감정 조절이 힘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그때까지 보호받으면서 살아왔으니까 자기주장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아예 접어버리는 거죠. 또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할 때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는 뭐든지 안 된다고 하니까. 유일하게 말할 수 있고, 유일하게 자기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공간이 야학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엉뚱한 상황에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자기주장을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동안 참고 살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회를 처음 배우는 곳이 야학이에요. 요령 있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주고받는 중간 중간에도 손○○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사용하며 말을 자제하거나 생각에 잠기는 경우가 있었다. 몇 년을 야학에서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대화의 기술을 습득하거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수업을 마치면 밤 9시 45분이 되고, 뒷정리와 종례를 한 후 귀가를 한다. 초창기와는 달리 전동휠체어도 많이 보급되었고, 문화체험을 통하여 등학교 훈련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몇 명의 학생들은 스스로 귀가를 할 수 있지만,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교사와 봉사자의 차량으로 귀가를 하게 된다.

학교 내 수업과는 별도로 학교 밖 수업은 ‘문화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문화체험은 ‘학습’과 ‘투쟁’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문화체험의 기원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화체험은 3대 교무를 하던 안○○ 교사의 제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처음에는 ‘우리도 한번 나가보자’라고 했단다. 영화도 보고, 야구경기도 즐기고 하다보면 지역사회 시스템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변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첫 시작은 당시 대구 시내 모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던 최고의 흥행작 ‘엽기적인 그녀’ 보러 가기였다. 영화관에서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을 경험하게 된다. 당시 3대 교무를 하고 문화체험을 기획하였던 안○○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토요일 오후 3시에 갔어요. 봉사 동아리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토요일 오후 세시나? 한가할 때 가는 게 안 좋나? 그러대요. 사람 많을 때 가면 지나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때 휠체어(탄사람)가 한 스무 대쯤 되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봉사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영화 보러 가는 거니까 사람 많을 때 가고 싶다고 하고 그대로 추진하게 되었지요. 극장에 들어서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엽기적인 그녀는 3층에서 하는데, 극장 2층까지는 걸어 올라가야 하고, 3층은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했지만 작동은 되지 않았지요. 직원들이 깜짝 놀라서 다 내려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짹짹 매더라고요. 극장을 오가는 사람 다 통제 시키고 우리가 올라갔죠. 직원들도 휠체어 들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휠체어 들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극장 안에 들어가니까 맨 앞에 장애인석이 있긴 있는데 딱 두 개. 법적인거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서는 못보고 제일 앞(통로)에서 봤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힘겨웠던 영화보기 문화체험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어디로든 움직이고 부딪쳐서 조금이라도 바꾸어야 한다 생각을 갖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던 중 서울을 중심으로 이동권 운동이 점차 지방으로 확대되고, 초기 문화체험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호흡을 같이 하며 ‘버스타기 운동’으로 발전한다. ‘버스타기 운동’은 한국시리즈 야구 경기 관람, 박물관 견학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맞물려 활발히 추진된다. 이러한 파격적인 행사는 학생, 교사, 그리고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을 조금씩, 서서히, 구체적으로, 그러나 힘 있게 바꾸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때마침 학생들의 이동수단은 수동휠체어에서 전동휠체어로 대폭 바뀌게 된다. 수동에서 전동으로의 교체는 문화체험활동을 더욱 빠르고 손쉽게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문화체험활동은 체험학습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고쳐나가는, 즉 체험학습 본래의 목적 외에 지역사회를 바꾸어나가는 운동의 개념을 보태게 된다. 체험과 더불어 1인 시위, 서명운동, 정책제안 등으로 그 활동 폭을 넓혀가게 되고, 지역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활동을 거듭하면서 변화되는 활동의 주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기의 문화체험은 교사가 기획하고 주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횡수가 거듭되면서 학생이 참여하는 폭은 점차적으로 늘어났고, 2004년에 들어서면서 투쟁의

전진에 학생들이 배치된다. 물론, 교사 역시 학생의 활동과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했으나, 실천의 주체와 참여의 폭이 대폭 변화한 것은 야학의 교육실천과 관련하여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체험의 슬로건 “함께 살아도 될까요?”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소망, 그러한 소망을 조심스럽게 사회를 향해 던져보고 응답해주기를 바라는 질라라비아학 학생들의 마음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야학은 목적지, 종착지가 아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곳이다. 문화체험과 투쟁을 통한 이들의 활동은 장애인지역공동체의 부설기관인 다릿돌 자립생활센터(소장 류○○), 전동사모(소장 원○○), 보치아팀(소장 허○○) 등의 활동으로 변신과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특히 위의 부설기관이 모두 야학출신 졸업생에 의해 꾸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인 야학’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문화는 일반 학교 또는 일반 야학과 뚜렷하게 다르다. 사회경제적인 빈곤, 장애인을 억압하는 가정 내의 분위기, 지나친 수동성과 자괴감,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빚어지는 고립된 사고는 장애인 질라라비아학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곤 한다. 질라라비아학 학생들에게 빈번히 언급되는 말 중 하나가 “그냥 이대로 살래요”이다. 수동적이고 고립된 사고가 야학생들의 의식을 강하게 억누르고 규정할수록 학생들 사이에는 체념과 좌절의 문화만 더욱 강화될 뿐이다. 이것은 가정과 사회의식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힘들다. 하지만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은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수동성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대화와 소통, 그리고 삶을 옥죄고 있는 사회에 대한 자각이다. 문화체험과 각종 투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자신이 누구임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다. Freire(1997)는 비인간화는 일종의 왜곡으로 인격체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가로 막는다고 했다. 즉, 인간은 소외극복과 노동해방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활동적인 현실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인간화’되며, 민중은 세계를 자신의 역사로 만들어야 비로소 인간화된다는 것이다. 질라라비아학 학생들은 교내의 활동을 통해 미처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동지적 연대감을 갖는 문화체험과 길거리 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바탕을 마련하게 된다.

이들은 그동안 교육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된 차별과 억압은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와 그것이 만들어낸 장벽에 기인한다는 사실에 공히 동의한다. 따라서 사회구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교외활동의 무게중심을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두고, 자신들이 밟고 서있는 구체적인 사회의 맥락과 상호작용하는데 주력한다. 의식적인 참여를 배제하는 결정론적 관점을 거부하고 장애인들의 질서와 가치, 태도, 신념 등이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상식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운동의 중심에 당사자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야하고, 바로 그것이 장애인의 삶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정당성과 가치관에 기초한 문화는 그동안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던 폭력적인 가정과 사회,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저항하는 몸짓이며, 부당한 사회권력 앞에서 소수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스스로 불복종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힘이기도 하다. 저항과 불복종의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색하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타협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구별해내는 과정들 속에서 질라라비아 학생들은 새로운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비로소 그 문화를 스스로 즐길 수 있게 되며, 더불어 한 인간으로서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야학이 단순히 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일은 학생들이 경계해야 할 요소이기도 하다. 끊임없이 야학의 구성원들은 운동의 과정과 결과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고, 힘 있는 상부 단체에 예속되어 운동의 본질을 흐리지는 않는지, 리더의 움직임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실천적 맥락 안에서 현실적인 투쟁 방법을 창안하고 선택하여 사회와 시민이 함께 동의하고 용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결국 비장애인 중심의 논리와 가치를 바꾸어나가는 활동으로 귀결되기까지 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비판적 성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IV. 야학의 교사 문화

야학 교사는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질라라비아학 교사는 학력 등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는 않는다. 교사회는 교무주임 이하 총무부, 교육부, 문체부, 편집부 4개의 부서로 구성된다. 각 부서는 적정 인원의 교사와 학생으로 이루어지고,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 야학은 교사모집을 시작한다. 교사모집은 벽보를 통한 홍보와 알음알음 권유에 의한 것이 많다. 우선, 대자보나 포스터에 야학을 소개하는 글을 쓰거나, 메모지만한 크기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붙여둔다. 교사의 모집은 교육과정운영을 원활히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교사모집에 공을 들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사가 모집되면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의 내용으로는 첫째, 장애인지역공동체 회칙, 조직 체계, 활동상황 소개, 둘째, 질라라비아 장애인야학의 조직도 및 역할 소개, 셋째, 교사 세미나로 이루어진다. 세미나에서는 한국 야학사, 장애인교육권, 장애인노동권, 장애인운동역사에 대하여 다루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토론을 하게 된다. 이어 교사 실

무에 관한 내용으로 넷째, 교무일지, 수업계획서, 수업평가서, 출석부, 성적표 기재 요령, 다섯째, 참관수업, 공개수업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연수는 4주간을 기본 과정으로 하며,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에서 전체 내용을 관리하고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대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무 투입 전에 장애체험활동을 실시한다. 임○○은 수동휠체어를 타고 시내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장애체험활동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 한다.

휠체어를 타고 출발했는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였어요. 다 건너가서 인도로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경사가 별로 안 높은데 그래도 턱은 약간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다가 휠체어가 뒤집어졌어요. 바닥에 그대로 떨어졌지요. (중략) 버스 타기도 힘들었어요. 부탁해서 들어 달라는 것도 그렇지만, 뒷문 중간에 바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버스가 와도 그대로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버스 한번 타기도 이렇게 힘들구나. 그리고 나서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죠. 제가 여기 안 오면 몰랐겠죠. 정말 불편한 거. 가고 싶어도 못가는 거.

이와 같은 활동은 비장애인 교사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속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야학이라는 곳이 학생도 그러하지만, 교사도 입학하여 성장하는 곳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다.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야학의 교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생활 관심사의 변화와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교사모집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라, 공개수업을 생략하거나, 아예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하여 속성 연수하고 곧바로 수업에 투입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현재(2007년 2학기) 야학에는 7명의 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이중 3명은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 상근자들이다. 교사 인력 부족은 야학과 사무국 일이 맞물려 수업 결손이 생기는 경우를 초래하기도 한다.

교사들은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 회의를 통하여 수업 시간표를 작성한다. 다음은 교사회의를 통하여 세부 시간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각 과목을 수준별로 나눈다. 국어, 영어, 수학은 3개 수준, 사회와 과학은 2개 수준으로 나눈다. 과목 뒤에 기입된 숫자는 1이 초급, 2가 중급, 3이 고급반임을 뜻하고, 국어1반, 국어 2반식으로 명명한다. 둘째, 5개 과목, 13단계에 지도 교사를 배치한다. 교사들은 우선 자신이 가르치기를 희망하는 교과목과 수준을 선택한다. 선택의 과정에서 특정 교과와 수준에 쏠리거나 비어있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협의하여 고루 분배한다. 그리고 하루에 같은 과목을 연속하여 수업하는 일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연속 수업을 허용할 경우, 교사에게는 일주일동안 야학에 하루만 나와서 지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한 과목을 하루에 집중해서 학

습하고 일주일간 다루지 않으므로 학습연결이 용이하지 않고, 수업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시간표는 철저히 학생의 입장에서 작성되므로 같은 과목을 하루에 두 시간 이상 수업하는 일은 금한다. 셋째, 각 과목의 수준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구분하여 묶는다. 국어, 영어, 수학은 3개 수준으로, 사회와 과학은 2개 수준으로 구분하여 묶고, 이때, 진급자도 결정을 한다. 여기에서 초·중·고급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비슷한 수준으로 묶었을 때, 위계적으로 초급, 중급, 고급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수업실시에 앞서 연간 수업계획서와 월별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무부에 제출하고, 진도에 따라 수업한다. 월별 계획서는 한 달을 단위로 주별 교수 내용을 요약하여 수업진행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계획과 실사가 어긋나게 되는 경우, 교사는 학생과 충분히 의논을 한 후 수정시간표를 작성하고, 진도를 재조정 하게 된다. 교사의 수업 진행상황과 학생의 학습발달 현황은 수업평가서로 정리되어 교무부에서 월별로 취합하고, 다음 수업의 진행을 결정하는 기준선이 된다.

수업이 있는 날은 도착하여 식사준비부터 하게 된다. 저녁 식사시간 동안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수업 전 저녁 식사는 꼭 필요하다. 따라서 시간표에도 6시 30분부터 7시까지를 저녁시간으로 고정 배치하였다. 당번 교사는 수업이 시작되기 한, 두 시간 전에 미리 도착하여 식사 준비를 한다. 20인분 정도의 쌀을 씻어 밥을 준비하고, 국을 한 가지 끓이는 정도이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수업에 들어간다.



[사진] 질라라비 장애인 야학의 구조와 수업

위의 사진은 질라라비 야학의 교실 구조와 수업장면이다. 좌측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야학의 구조, 교실, 영어1수업, 종례 풍경을 나타낸다. 야학은 여럿이 모일 수 있는 거실 하나를 중심으로 삼면에 교실로 쓸 수 있는 작은 방이 세 개 붙어 있는 구조이다. 각각의 방은 교실로 이용되는데, 4인이 앉을 수 있는 넓은 책상과 화이트보드가 한 개씩 갖추어져 있다. 국어 수업과 같은 경우는 교실1, 교실2, 교실3에 국어1, 국어2, 국어3반의 학생들이 배치되어 수업을 받는다. 수업은 철저히 수준별 맞춤식으로 진행이 된다. 자율과 창의성을 인정하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교사는 고품격 강의를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2의 수업에서는 ‘국사시간에 세계사 공부하기(웅진주니어)’를 교재로 하여 국사와 세계사를 횡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교재의 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중파에서 방송되고 있는 사극의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사회적인 관습에 대하여 토의해보는 등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학습욕구가 강하고 특정 학년에 갖다 맞추거나 성적 위주의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눈높이만 파악하면 큰 어려움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학습 그 자체보다는 사회생활과 소통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므로, 일반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바꾸어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학력에 얽매이지 않고 때로는 교사로서, 때로는 친구로서, 때로는 조력자로서 탄력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야학이 가진 장점이 되는 것이다. 수업의 질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교육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그러는 동안 자연스럽게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사회에 요구하고 대응해야 할 부분에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특히 같은 자립생활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교사가 같은 중증 장애인인 경우 그 효과는 배가 된다. 지체장애인으로서는 독립생활을 하며, 장애인지역공동체 활동가이자 교사 조 ○ ○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공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데는 동의해요.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자신들의 어려운 점을 저에게 물어 올 때예요. 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저를 믿으니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저도 될 수 있으면 끝까지 남아서 시간을 함께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보면 자립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고. 힘든 점이 있으면 저도 그런 삶을 살아 왔고 한번쯤 해 볼만 하지 않느냐? 그러면 많이들 공감을 하세요. 자극하고 강조하는 거죠. 많이 자립시키고 싶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욕심내어 권하고 싶은 것이 바로 자립생활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기꺼이 길 찾기의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식구들에게 의존하여 오랜 기간 생활을 해왔고,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고 수동적으로 도움만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서 안타깝다고 덧붙인다.

한편, 이들 교사에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사회의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는 교사회의에서는 교육과정을 재정비하고 학기 중 치르게 될 주요 과제들을 계획하며, 학기 중에 실시하는 회의에서는 앞서 계획한 일들의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학사 운영이 야학의 교칙보다는 그때 상황에 맞게 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회의가 많을 수밖에 없다. 교사 회의에 대하여 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정기 회의를 해요. 시간 맞추기가 제일 힘들어요. 수업이 있는 날은 수업 마치면 10시잖아요. 수업마치면 차량봉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회의를 하기도 하지만, 꼭 몇 명은 빠지게 되지요. 정기회의 말고는 학생들이 특별활동시간에 회의할 때, 교사들도 모여서 회의를 해요. 중간에 따로 모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그때그때 다루어질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의논하죠. 그 시기에 준비해야 할 것, 시기별로 필요한 사항들... 소풍이나 문화 체험 같은 것 있으면 '문체회의'라는 것을 해요. 학생, 교사가 따로 할 때 도 있고, 같이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따로 (회의를)하다가 끝날 때쯤 10분 전에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기도 해요. 날짜 좋은 날 잡고, 장소 정하고 그런 식이죠. 방학 때 산간학교 갈 때면 '산간학교 회의'라고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될 만큼 회의를 해요. 큰 행사 할 때는 꼭 이렇게 해야 해요. 산간학교 기획단이라고 뽑거든요. 교사 몇 명, 학생 몇 명 이렇게요. 여건이 되는 사람은 모두 참여해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회의를 하지요. 가기 이주일 전부터 일주일에 세 번은 할 거예요. 그런 거 말고는 투쟁에 관한 의논을 하기도 하고.

수업이 끝나면 밤 10시부터 하교, 차량운행에 들어간다. 야학이 귀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차량으로는 12인승 기아 봉고 한대가 있다. 본디 '한○○' 소속의 차량이지만 '한○○' 측의 배려로 야간에는 야학에서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집이 각기 다른 방향이므로 봉고차 한 대만으로는 자정 안에 귀가시키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러 방향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월·수·금 각각 다른 사람들이 차량봉사를 위하여 하교시간에 야학에 들르게 된다.

수업을 마치면 바로 차량봉사에 들어가게 되고 각자 흩어지게 되기 때문에, 시간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회의시간 부족, 그에 따르는 학사운영의 질적 문제, 교사와 학생 간의 친목에 관련된 사항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교사는 누구든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장애인지역공동체에서 상근하며 야학의 교사를 겸하고 있는 조○○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어차피 시간과 돈은 감수할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적으로는 정말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야학 끝나면 교무 선생님 같은 경

우는 차량봉사까지 해야 하거든요. 들어가면 밤12시... 이럴 텐데. 그래도 좀 남아서 하루를 평가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교사그룹의 핵심이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이라서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사무국(장애인지역공동체 활동가)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는 야학만 하는 게 아니라 투쟁사업도 중요하거든요. 센터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야학에 신경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게중심을 옮기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만큼 교사가 확보되어 해야 할 몫이 고루 분산되어 짐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교외 활동으로는 크게 문화체험, 산간학교, 소풍 등이 있다. 이러한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우선 장소를 선정하고 사전 답사를 다녀오는데,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문화체험 규칙서의 규정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공동 협의로 진행된다. 집행부는 우선 각 학교의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다. 문화체험 등의 굵직한 행사들은 아무리 창의적으로 행사를 치른다 해도 자원봉사가자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외활동은 야학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어도 관심 있고, 희망만 하면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야학을 홍보하고, 학생과 교사, 자원봉사자를 좀 더 모집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학교 행사는 아니지만, 대외 투쟁은 질라라비야학 교사나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행사이다. 각종 문화체험의 결과로 얻어진 사회의 불합리함을 토로하고 변화를 위한 실천의 장이 바로 투쟁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고 고통과 굴종에 종지부를 찍는 교육의 힘이 여지없이 증명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던 이동권 투쟁,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활동보조인 투쟁 등에서 대구지역은 장애인지역공동체와 질라라비야학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부모님들도 함께 참가하여 지하철 2호선 편의시설 마련과 활동보조 160시간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어낸다.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학습과 투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임무를 강조한다. 단순히 공부만 한다고 야학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꾸어나가는 것이 야학에 다니는 교사와 학생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사회운동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정 ○○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여기는 의사표현이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조금만 건드려줘도 충분히 깨닫게 돼요. 배고픈데 참고 있는 사람한테 '너 지금 배고프잖아'라고 말을 하면 '맞아 나 배고파'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걸 굳이 이데올로기로 다가설 필요는 없거든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억눌린 거는 살짝만 건드려줘도 금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적 제약이 있으니까, 또 그

렇게 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컸으니까 표현하는 게 걸렸겠지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면 문제는 훨씬 수월하게 풀리게 되지요. 없는 걸 만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욕구에 관한 부분들, 교육, 노동... 전부다.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좀 다듬을 필요는 있어요. 가볍게 알고 있는 것이라도 연습이 되고, 주장할 것들이 내 속에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해요.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훈련되고 교육되어서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요. 확실히 할 수 있게끔 해야 해요.

정○○은 학생들이 장애인차별철폐 등 여러 운동에 꾸준히 참여했기 때문에 사회적 인 불평등, 억압에 대한 토론을 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까지는 인위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교과학습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현실에 기초한 학습은 교육효과도 좋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것은 이념이란 것이 먼 세계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고 성장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야학은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투쟁해온 결과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연간 700만원의 교육자금을 지원받는다. 한 달에 들어오는 20여만 원의 후원과 교육청 지원 자금으로 야학의 살림살이는 후원금으로만 충당되던 예전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진 편이다. 전체 수입금을 월별로 분산하여 지출하는데, 월별 약 90만원의 돈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 밥을 먹고, 교육활동을 하는데 쓰게 된다. 예전에 비해 나아진 편이라고는 하나, 행사를 치르거나 교육과정을 원활하고 풍성히 하기 위한 경비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게다가 교육청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다시 운영난에 빠질 위험을 다분히 안고 있다. 경비 운영과 행정에 관련된 사항은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장애인 야학’에서 드러나는 교사들의 문화 또한 일반 학교들과 분명 차이가 있다. 이들은 정규교직과정을 이수한 자격증이 있는 교사도 아니고, 한 교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충분한 경험, 특별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더구나 모든 야학이 그렇듯이 야학 교사들에게는 보수가 주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일주일에 삼일, 평균 15시간 이상을 야학에 쏟아부어야 하는 야학의 교사는 철저한 봉사와 책임의식이 없으면 해내기 힘든 일이다. 이는 야학 교사들에게 부여된 봉사와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대학생이나 자원봉사자들만이 교사로서 생활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에게 높은 교육적 책무성과 윤리관을 요구하게 되고, 교사와 자원봉사자 확보에 제한을 가져오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봉사와 책임만으로 야학 교사들의 의식을 묶어 두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봉사와 책임을 넘어서는 의식의 성장, 인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노력들이 뒤따라 한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적 성장을 도모할 훌륭한 촉매제

로서 작용할 것이다.

장흥재(1999)는 제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의 문화를 관료체제와 관료주의에 적당히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생성적 교육론의 포기하고 소극적인 저항의 성격을 지니는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제도권 교사는 침묵의 문화에 침잠해 있는 동안 무기력을 재생산하게 되고, 때로는 관료체제를 극복하려는 나름대로의 교육활동도 공적인 의미를 확보하지 못하고 가치를 폄하 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침묵의 문화에 침잠한 교사의 모습과 질라라비야학 교사의 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질라라비야학 교사들은 교육과정 구성이나 교육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양심에 기초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교육 행정당국과 관리자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해야 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자율성에 기초한 유연한 교육과정은 개인의 판단과 신념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잦은 회의를 필요로 하므로 상호간 대화는 교육활동 이전의 필수적인 단계로 자리 잡게 된다.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는 학생들이 처한 현실적인 제약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주고, 이것은 곧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반영되며, 안주하는 삶보다는 저항하는 삶, 변화를 지향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던 야학의 교사는 정규 교사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격 있는 교사는 아니다. 이것은 자칫 학생수준과 교육내용을 적당히 판단하고 편집하여, 교육을 느슨한 시간 때우기 식의 봉사 수준으로 격하시킬 우려를 다분히 안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질라라비야학 교사들이 본인에게 더욱 의미 있는 일을 발견했을 때 미련 없이 교사생활을 그만 두었고, 잦은 교사 교체는 교육과정 운영의 질과도 연관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여 왔다. 질라라비야학 교육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다. Freire(2006)는 가르치는 일은 보육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단순 봉사활동과 장애인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교과 내용을 전달하는 일에서 교사는 결코 성장할 수도 없고 자신의 삶을 바꿀 어떠한 힘도 얻지 못한다. 서로를 억압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쉽게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는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 Freire(2000)는 진보적인 교사의 자질 조건으로 겸손, 사랑, 용기, 관용을 든다. 결국 질라라비야학 학생들의 암울한 사회적 위치와 가정환경에 맞서 싸워 희망을 찾는 일은 진보적 교사의 교육책임으로 남는다. 이런 점에서 끊임없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배움과 성장을 도모하는 질라라비야학 교사들의 모습은 Freire의 교사론에 매우 근접해 있다. 학생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같은 눈높이에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모습, 그리고 장애인을 둘러싼 억압적 현실을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야학 교사들의 모습은 그래서 아름답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앞서 기술한 봉사와 책임을 넘어선 의식의 성장, 인간화를 도모하여 정신적으로 강력한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야학의 교사들은 가르치면서 배운다. 교사나 학생 사이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이 만

나는 관계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 또한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기에 가르침은 곧 배움을 유발하고 가르침과 배움의 유기적인 작용 속에서 교사는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자 사회운동가였던 사람들이 장애인 야학이라는 공간에 들어와 학생들과 함께 지내며 삶을 돌아보고 세상을 다시 보는 과정 속에서 이미 이들은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질라라비 장애인야학 사례를 통해 장애인 야학의 역사와 현황을 짚어보고, 학생과 교사문화 성격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는 또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장애인 야학이 가지는 가치와 전망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첫째, 장애인 야학은 야학 고유의 특성인 대안교육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다. 제도권 교육에서 소외받아온 장애인이 진정 필요한 것은 배움에 대한 욕구만은 아니다. 한 사람으로서 태어나 사람답게 살고픈 열망을 학교가 채워주어야 하는데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직 제도권 교육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능습득 위주의 생활력을 향상하는 것이 교육의 주목적인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장애인을 수용하지 못하는 제도권 교육의 밖에서 힘겹게 대안을 모색하는 장애인 야학은 그래서 더욱 가치가 있다.

둘째, 장애인 야학은 장애인을 더욱 자유롭게 한다. 고병권(2007)은 ‘자유’를 논함에 있어 스피노자와 베르그손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자유는 선택이 아니라 능력’이라 규정한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자신의 기호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진정 그의 자유는 술에 대한 예속과 무능력에서 벗어나는데 있듯이 자유란 원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고, 자유란 요구가 아니라 증거가 된다. 제도권 교육이 장애인들에게 끊임없이 사회에 적응하기를 가르치는 동안 야학은 진정 자유롭게 사는 능력을 길러주고 있다. 야학의 교육과정에서도 드러나듯 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장외투쟁을 통해 장애인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그저 바라기만한 자유가 아닌 행하는 자유로, 자유인으로 살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 야학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 있다.

셋째, 장애인 야학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사는 교사와 학교 관계자 모두를 성장시키는 공간이다. 봉사와 책임이라는 도덕적 개념을 벗어나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가 함께 사람답게 사는 법을 익히고 삶을 성찰하는 과정은 야학이 지속가능한 교육 공동체로 발전되어야 할 명분이기도 하다. 야학에서 학생은 좌절과 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을 억압하는 세상에 당당하게 저항하면서 내면적 자유를 얻어 성장하고 있다. 야학에서 교사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봉사와 책임을 넘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인간

다운 삶을 체험하고 있다. 이렇듯 함께 성장하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야학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우리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야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사회의 복지 수준과 제도권 교육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장애성인 교육에 대한 복지와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 장애성인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장애인 야학의 존재와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준다. 장애인 스스로가 제도권 교육에서 시도할 수 없는 자유로운 교육과정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는 장애인 야학 학생들의 의식을 깨우쳐 장애인을 위한, 나아가 소수자를 위한 사회운동으로서 구체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과 함께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열악한 야학재정 상태와 교사수급문제, 학생들의 순탄치 못한 가정사와 제약은 야학의 체계적 운영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자발적인 동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수동적인 행사 참여는 자칫 장애인 야학 교유의 정신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야학이 사회운동으로서 나름의 전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조직적인 운영체제와 발전적인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병권(2007). **교추장,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 서울: 그린비.
- 곽정란(2003). 한국 장애인운동의 특수교육(학)적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도현(2007). **차별에 저항하라**. 서울: 박종철출판사.
- 김병하(1999). **특수교육교사론**. 경북: 대구대학교 출판부.
- 김병하(2002).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와 「희망의 교육학」: 특수교육(학)에의 시사.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3(3), 133-141.
- 김병하(2005).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특수교육(학)적 함의. **특수교육학연구**, 40(1), 1-22.
- 김은경(1988). 야학운동의 진일보를 위하여. **보운-충남대학교 Vol.17**, 237-249.
- 박진환(2007). 가난한 사람들의 기적, 희망의 인문학. **삶과교육7집(5월호)**, 110-111.
- 유동철(2005). 한국 장애인운동의 성과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Vol.21, 5-33.
- 이광영(2003). 야학의 실태와 사회·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익산 소재 삼동 야학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동석. (2004). 장애학의 다중패러다임에 따른 한국 장애인 운동의 성격 분석. **재활복지**, 8(1), 34-67.
- 장홍재(1999). 초등학교 교사의 침묵문화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Barton, L.& Oliver, M.편(윤삼호 역)(2006). **장애학: 과거·현재·미래**. 대구: 대구DPI.
- Freire, P.(성찬성 역)(1997). **페다고지**. 서울: 한마당.
- Freire, P.(교육문화연구회 역)(2000). **프레이리의 교사론**. 서울: 아침이슬.
- Freire, P.(교육문화연구회 역)(2002). **희망의 교육학**. 서울: 아침이슬.
- Shorris, E.(고병현·이병곤·임정아 역)(2006). **희망의 인문학**. 서울: 이매진.
- Freire, P.(1999). *Pedagogy of hope*. New York: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 Freire, P.(2000).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Oliver, M. (윤삼호 옮김)(2006). **장애화의 정치**. 대구: 대구DPI.

An Ethnographic Study on Evening Class for the Disabled: Focused on Jilarabi Yahak

Kim, Yong-Wook

Gimhae Samgae elementary school

Kim, Byung-Ha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scribe the history of the Jilarabi Yahak for the disabled, to analyze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ts curriculum and in what context the culture of students and teachers is formed and maintained, and to explain the educational and cultural meaning of an evening class for the disabled. Jilarabi Yahak which pursues the removal of all types of discrimination from the world, was founded in 2000, with the objective of providing the minimum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those alienated from the official education system. The school offers elementary,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courses, and its classes are executed in the evening on three days a week: Monday, Wednesday and Friday. Students in Jilarabi Yahak cast off their long-accustomed passivity and form the culture of a studying community through conversation and communication, and as a result each of them has the valuable experience of 'humanization' as a person. Teachers in the school establish a culture based on a true spirit of service and sense of responsibility and learn while teaching as well as teach while learning through challenging and resolving the oppressiv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disabled together with the students through continuous conversation with the students. The flexible curriculums and expanded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which are not available in official education, expect to awaken student' consciousness and motivate the disabled to participate in social movements for the disabled.

Key words: The disabled, evening class, curriculum, student' culture, teachers' culture

논문 접수: 2007. 10. 28 심사 시작: 2007. 11. 9 게재 확정: 2007. 12. 10